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sup>TH</sup> SUNDAY IN LENT

주후 2020년 3월 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42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 번 시편(Psalm) 3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6:4-12** 이선호 집사

설 교 Sermon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김일선 목사  
(What We Want Each of You)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9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무료함을 핑계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이기심과 게으름을 당연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이로 인한 우리의 염려와, 조급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42:5, 42:11, 43: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글개역 **히6:11-12**)

“We want each of you to show this same diligence to the very end, in order to make your hope sure. We do not want you to become lazy, but to imitate those who through faith and patience inherit what has been promised.”

(NIV **Hebrews 6:11-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9 (주일)	3/30 (월)	3/31 (화)	4/1 (수)	4/2 (목)	4/3 (금)	4/4 (토)
	레1	레2,3	레4	레5	레6	레7	레8
본문	요20	요21	시1,2	시3,4	시5,6	시7,8	시9
	잠17	잠18	잠19	잠20	잠21	잠22	잠23
	빌4	골1	골2	골3	골4	살전1	살전2

수/요/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 (4/1 오후7:30)

“괘가 떠날 때와 괘가 멈출 때” (민10:28-36)

지난 주일(3/22) 말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히 5:12-6:3)

오늘 본문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히 5:12)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연수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제는 마땅히 신앙의 본을 보이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실상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전해주는 신앙의 권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

1)첫째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라(히6:1상)는 것이고, 2)둘째는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히6:1하)는 것이며, 3)셋째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히6:2-3)는 것입니다. 특별히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간절함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적 갈망과 순종, 간절함과 그에 따른 반응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교제의 삶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함께 모였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삶이 어떠한 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자로서 함께 모일 때나 골방에 홀로 머물 때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